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 주차 (1:1~1:18)**

**(2015년 1월 25일 - 2015년 1월 31일)**

**(제3권 1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 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 월 2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주일)

### 오늘의 본문 (요1:1~5)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 원어해석하기

- (1절) 태초에 (Εν ἀρχῇ)  
그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ἦν ὁ λόγος)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 (3절)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πάντα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존재하여온 그가 (ὁ γέγονεν)
- (4절) 그 안(하나님 안에)에 (ἐν αὐτῷ)  
(그가) 생명이었습니다 (ζωὴ ἦν.)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καὶ ἡ ζωὴ ἦν τὸ φῶς τῶν ἀνθρώπων.)
- (5절) 그리고 그 빛이 어둠가운데에서 비추었습니다 (καὶ τὸ φῶς ἐν τῇ σκοτίᾳ φαίνει.)  
그리고 그 어둠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καὶ ἡ σκοτία αὐτὸ οὐ κατέλαβε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1) 요한 복음을 펼치면 처음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나(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말씀으로(마가복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배경 설명도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원어로 번역한 부분을 읽으십시오.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열된 단어 하나 하나의 뜻부터 알아 보아야 합니다. 로고스가 무엇이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 신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태초에’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직전이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초에’라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창조가 없었던 그 때’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나올 듯 합니다.

‘창조가 없었던 그 때’는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주가 존재하는 양식과는 다른 존재 양식으로 말이지요.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호 로고스’는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이라고 할 때의 ‘말씀’이나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경우 ‘말씀’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정관사 ‘호’(ὁ)를 그대로 붙여서 ‘그 로고스’(ὁ λόγος)로 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로고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이 살던 당시 지배적인 철학은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우주관에 ‘로고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실 로고스는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주 만물의 기초이자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질서로 지극히 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로고스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으며 인간은 물론 온 우주 만물 안에 이 로고스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 안에 신(로고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불교나 힌두교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가져온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철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개념들로 세상을 해석하려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인간들의 해석이 너무나 확고하기에 기독교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그러한 생각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한이 복음서를 쓸 초대 교회 당시에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약자이자 소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오히려 과감하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요한이 살던 시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시대로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주의 질서이자 기본 원리인 ‘그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명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태초에 그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계셨습니다”라고 쓴 동사는 에이미(εἶμι)동사(영어의 be 동사에 해당)의 불완전 과거 시제입니다. 영어로는 was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그로고스’로 계셨던 분이 더 이상 ‘그로고스’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모습, 다른 존재(본질은 같으나 모습이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이 ‘그로고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이시고 우주를 운행하는 질서로 계셨던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에서 ‘그로고스’로 계셨던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로고스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죽으신 희생양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하루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그로고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로고스가 존재의 근원이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5)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 원어해석하기

- (1절) 태초에 (Εν ἀρχῇ)  
그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ἦν ὁ λόγος)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 (3절)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πάντα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 (4절) 존재하여온 그가 (ὁ γέγονεν)  
(그가) 생명이었습니다 (ζωὴ ἦν.)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καὶ ἡ ζωὴ ἦν τὸ φῶς τῶν ἀνθρώπων.)
- (5절) 그리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비추었습니다 (καὶ τὸ φῶς ἐν τῇ σκοτίᾳ φαίνει.)  
그리고 그 어둠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καὶ ἡ σκοτία αὐτὸ οὐ κατέλαβε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셨으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선언만큼 강력한 주장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선언으로 글의 서두를 시작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독립된 또 다른 존재임을 입증합니다. 동일체이면 마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프로스(πρὸς)는 단순히 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향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그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그 로고스'를 향해 있는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던 존재입니다. 물론 두 분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1 장 1 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절 마지막부분을 읽으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즉,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셨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함에 있어 이보다 더 단호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3 절을 읽으십시오.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존재의 근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창세기 1 장과 2 장의 기록은 바로 ‘그 로고스’를 통해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 로고스’는 스스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자신을 생겨나게 했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 장 15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한 분이 됩니다. 피조되지 않고 원래부터 존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구약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up>43</sup>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sup>44</sup>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sup>45</sup>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sup>46</sup>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sup>47</sup>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3-17).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골로새서 1 장 15 절과 17 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 장 16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것은 어떠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3 절과 14 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속되기 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구속으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우리의 구속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한 분이시고 구원의 완성자라는 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로고스가 생명이요 빛이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1:1~5)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 원어해석하기

- (1절) 태초에 (Εν ἀρχῇ)  
그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ἦν ὁ λόγος)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을 마주하여 계셨습니다 (οὗτος ἦν ἐν ἀρχῇ πρὸς τὸν θεόν.)
- (3절)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πάντα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καὶ χωρὶς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οὐδὲ ἓν.)  
존재하여온 그가 (ὁ γέγονεν)
- (4절) 그안(하나님 안에)에 (ἐν αὐτῷ)  
(그가) 생명이었습니다 (ζωὴ ἦν.)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있습니다 (καὶ ἡ ζωὴ ἦν τὸ φῶς τῶν ἀνθρώπων.)
- (5절) 그리고 그 빛이 어둠가운데에서 비추었습니다 (καὶ τὸ φῶς ἐν τῇ σκοτίᾳ φαίνει.)  
그리고 그 어둠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καὶ ἡ σκοτία αὐτὸ οὐ κατέλαβε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 상반절을 읽으십시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그, 즉 하나님 안에 존재하여 온 그가 생명이었습니다”라고 번역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3절 마지막 부분 ‘호 게고넨’ (ὁ γέγονε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생명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당신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십니까?

4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요한은 로고스 → 창조 → 생명에 이어 이제 ‘빛’으로 옮겨 갑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로고스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던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인간들의 빛이었습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에서 비추어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세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역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을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빛과 광명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장 3절의 빛은 우르(אור)인데 1장 14절의 광명은 마우르(אור)입니다. 우르는 빛 그 자체, 발광체가 없는 빛을 말하고, 마우르는 발광체를 통해 나오는 물리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장 3절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빛은 무엇일까요? 창세 전에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창조를 통해 이땅에 ‘계시’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생명으로 계시되었고, 다음으로는 빛으로 계시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물리적인 빛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영역을 다스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해한다면 그 빛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창조의 과정이 바로 그분의 계시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빛으로 계시되었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됩니까?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5절을 읽으십시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지 못한 곳,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땅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창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흑암이었고 하나님의 영만이 수면을 운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수면은 단순히 물(H<sub>2</sub>O)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의 원천, 생명의 기원으로서의 물입니다. 즉,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때 생명의 원천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로 사용한 생명의 원천, 빛,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모두 로고스,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 이 우주의 창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계시하여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으십시오. 그 빛, 생명의 원천인 그 빛이 그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려는 인간의 교만이 어둠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빛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자(수)

### 오늘의 본문 (요 1:6~13)

6.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 원어해석하기

- (6절) 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Ἐγένετο ἄνθρωπος.)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ἀπεσταλμένος παρὰ θεοῦ.)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ὄνομα αὐτῷ Ἰωάννης.)
- (7절) 그가 증거를 위해 왔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εἰς μαρτυρίαν)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할 목적으로 (ἵνα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φωτός.)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할 목적으로 (ἵνα πάντες πιστεύσωσιν δι' αὐτοῦ.)
- (8절)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οὐκ ἦν ἐκεῖνος τὸ φῶς.)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ἀλλ' ἵνα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φωτός.)
- (9절) 그가 참된 빛이었습니다 (Ἦν τὸ φῶς τὸ ἀληθινόν.)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ὁ φωτίζει πάντα ἄνθρωπον.)  
이 세상으로 들어 온 (ἐρχόμενο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0절) 그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ἐν τῷ κόσμῳ ἦν.)  
그리고 이 세상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였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αὐτὸν οὐκ ἔγνω.)
- (11절) 그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εἰς τὰ ἴδια ἦλθεν.)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ἱ ἴδιοι αὐτὸν οὐ παρέλαβον.)
- (12절)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ὅσοι δὲ ἔλαβον αὐτόν.)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ἐξουσίαν τέκνα θεοῦ γενέσθαι.)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 (13절) 그들은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οἱ οὐκ ἐξ αἱμάτων)  
육신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σαρκός)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며]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ἀνδρός)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ἀλλ' ἐκ θεοῦ ἐγεννήθησα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던 사도 요한은 또 한 사람, 예수님에 앞서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며 오직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이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 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스가랴)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당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잉태를 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눅 1:7 참조). 그들의 현실에서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상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sup>14</sup>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이름을 기뻐하리니<sup>15</sup>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sup>16</sup>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sup>17</sup>”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눅 1:13-17).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17절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읽으십시오.

“<sup>76</sup>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sup>77</sup>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sup>78</sup>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sup>79</sup>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눅 1:76-79).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은 주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구원받을 자들이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책망 받아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율법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인도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혹독한 비판과 책망에 이르게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변에 가끔씩 이상한 신비 체험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중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망하는 자, 죄를 꾸짖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서 온 세례 요한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7 절을 읽으십시오.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 두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반드시 세례 요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겐 언제 세례 요한이 왔으며 그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생명책입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에 의해 그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과정이 바로 책망을 받는 과정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목)

### 오늘의 본문 (요 1:6~13)

6.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 원어해석하기

- (6절) 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Ἐγένετο ἄνθρωπος.)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ἀπεσταλμένος παρὰ θεοῦ.)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ὄνομα αὐτῷ Ἰωάννης.)
- (7절) 그가 증거를 위해 왔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εἰς μαρτυρίαν)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할 목적으로 (ἵνα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φωτός.)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할 목적으로 (ἵνα πάντες πιστεύσωσιν δι' αὐτοῦ.)
- (8절)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οὐκ ἦν ἐκεῖνος τὸ φῶς.)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ἀλλ' ἵνα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φωτός.)
- (9절) 그가 참된 빛이었습니다 (Ἦν τὸ φῶς τὸ ἀληθινόν.)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ὁ φωτίζει πάντα ἄνθρωπον.)  
이 세상으로 들어 온 (ἐρχόμενο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0절) 그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ἐν τῷ κόσμῳ ἦν.)  
그리고 이 세상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였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αὐτὸν οὐκ ἔγνω.)
- (11절) 그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εἰς τὰ ἴδια ἦλθεν.)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ἱ ἴδιοι αὐτὸν οὐ παρέλαβον.)
- (12절)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ὅσοι δὲ ἔλαβον αὐτόν.)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ἐξουσίαν τέκνα θεοῦ γενέσθαι.)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 (13절) 그들은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οἱ οὐκ ἐξ αἱμάτων)  
육신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σαρκός)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며]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ἀνδρός)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ἀλλ' ἐκ θεοῦ ἐγεννήθησα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요한은 다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진리였고, 그 빛, 그 진리가 이 세상에 계셨고 이 세상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으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며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참된 빛이었습니다”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옳을 듯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는 의미는 이 세상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으로 들어 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그가 창조한 피조 세계로 들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 세계로 들어 오셔야 했을까요? 피조물인 당신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 참된 빛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고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 장 19 절부터 21 절을 읽으십시오.

“<sup>19</sup>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sup>20</sup>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sup>21</sup>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3:19-21).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눅 18:9~14).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기준으로는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이 의롭습니다. 실제로 그 바리새인은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 장 19 절에서 말하는 ‘행위가 악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3 장 19 절과 20 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빛이 세상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빛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악한 행위란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워 놓은 윤리나 도덕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옳은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스스로의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아직 못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나 삶의 판단 기준이 더 이상 자신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반대로 그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롬 14:22).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금)

### 오늘의 본문 (요 1:6~13)

6.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 원어해석하기

- (6절) 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Ἐγένετο ἄνθρωπος.)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ἀπεσταλμένος παρὰ θεοῦ.)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ὄνομα αὐτῷ Ἰωάννης.)
- (7절) 그가 증거를 위해 왔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εἰς μαρτυρίαν)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할 목적으로 (ἵνα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φωτός.)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할 목적으로 (ἵνα πάντες πιστεύσωσιν δι' αὐτοῦ.)
- (8절)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οὐκ ἦν ἐκεῖνος τὸ φῶς.)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ἀλλ' ἵνα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φωτός.)
- (9절) 그가 참된 빛이었습니다 (Ἦν τὸ φῶς τὸ ἀληθινόν.)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ὁ φωτίζει πάντα ἄνθρωπον.)  
이 세상으로 들어 온 (ἐρχόμενο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0절) 그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ἐν τῷ κόσμῳ ἦν.)  
그리고 이 세상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였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ἐγένετο.)  
그리고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αὐτὸν οὐκ ἔγνω.)
- (11절) 그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εἰς τὰ ἴδια ἦλθεν.)  
그리고 그 자신의 것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ἱ ἴδιοι αὐτὸν οὐ παρέλαβον.)
- (12절)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ὅσοι δὲ ἔλαβον αὐτόν.)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ἐξουσίαν τέκνα θεοῦ γενέσθαι.)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 (13절) 그들은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οἱ οὐκ ἐξ αἱμάτων)  
육신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σαρκός)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며] (οὐδὲ ἐκ θελήματος ἀνδρός)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ἀλλ' ἐκ θεοῦ ἐγεννήθησα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창조한 피조 세계로 들어 오셨으나 피조 세계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믿는 자들을 다른 말로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읽으십시오.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로 들어 오셨습니다. 그가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 세계에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sup>27</sup>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sup>28</sup>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sup>29</sup>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sup>30</sup>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27-30).

“<sup>6</sup>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sup>7</sup>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sup>8</sup>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sup>9</sup>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6-9).

위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 피조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하고는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각적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야 합니다.

13절을 읽으십시오.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부터 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위에 인용한 요한복음 6장, 10장, 17장 말씀을 참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당신의 언어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sup>3</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sup>4</sup>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sup>5</sup>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sup>6</sup>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sup>7</sup>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sup>8</sup>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sup>9</sup>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 3:2-9).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로 번역된 ‘게네테아노덴’(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지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혹 모태 신앙(혈통)을, 혹 자신의 종교적 노력(육신의 뜻)을, 혹 자신의 의지(사람의 뜻)를 앞세우지는 않는가요? 스스로 나는 어디로부터 난 자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토)

### 오늘의 본문 (요 1:14~18)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원어해석하기

- (14절)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καὶ ἐθεασάμεθα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아버지로부터 홀로 존재하신 영광[을] (δόξαν ὡς μονογενοῦς παρὰ πατρός,)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ἀληθείας)
-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Ἰωάννης μαρτυρεῖ περὶ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외쳐 왔습니다 말하기를 (καὶ κέκραγεν λέγων·  
이 분이 내가 말했던 분입니다 (οὗτος ἦν ὃν εἶπον·)  
나의 뒤에 오시는 이 분이 나보다 앞서 존재한 분입니다  
(ὁ ὀπίσω μου ἐρχόμενος ἔμπροσθέν μου γέγονεν,)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ρῶτός μου ἦν.)
- (16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 위의 은혜를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ὅτι ἐκ τοῦ πληρώματος αὐτοῦ ἡμεῖς πάντες ἐλάβομεν καὶ χάριν ἀντὶ χάριτος·)
- (17절)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ὅτι ὁ νόμος διὰ Μωϋσῆος ἐδόθη,)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습니다  
(ἡ χάρι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ἐγένετο.)
- (18절) 어느 때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Θεὸν οὐδεὶς ἑώρακεν πώποτε·)  
아버지 품 안에 있던 홀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가 [그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μονογενὴς θεὸς ὁ ὢν 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 ἐκεῖνος ἐξηγήσατο.)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그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시던 그분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그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피조의 세계로 들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선언을 당신은 어떠한 감정으로 받아들이십니까?(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읽어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쉬운 일이었을까요? 감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요일 1:1-2).

그 생명의 로고스가 인간들과 호흡하고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주목했는데 우리가 본 그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홀로 존재하신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 장 1 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시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홀로 존재하시는 영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인간들의 세상 안으로 들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남들보다는 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를 하나

남의 아들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알아 봅니다. 왜냐하면 그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진리를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구입니까?

14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개역개정본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따르면 14 절의 중간 부분은 설명을 위해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번역하면 “그 로고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 하셨습니다.”입니다. 즉, 은혜와 충만은 ‘육신이 되신 로고스’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동거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어떤 노력을 했더라도 은혜를 위해서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의의 옷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주의할 것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였다거나 사업이 잘된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잘됨을 은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진정으로 얻게 된 은혜의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sup>5</sup>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sup>6</sup> 열심으로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sup>7</sup>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sup>8</sup>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sup>9</sup>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4-9).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